



△ 만나무

리나라 자생수종 2

- ▶ 과명 : 감탕나무과(Aquifoliaceae)
- ▶ 학명 : *Ilex rotunda* Thunb.
- ▶ 영명 : Kurogane Holly
- ▶ 한명 : 鐵冬靑
- ▶ 기탁 : 좀감탕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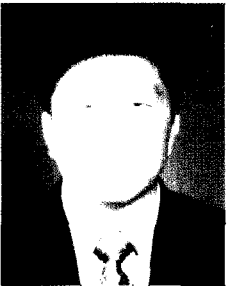
□ 분포 및 생태

• 자생적 분포범위(native range)

중국의 양자강 이남, 대만, 일본의 혼슈, 시코구, 큐우슈우 지방,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주도과 남부도서지방에 분포하는 난온대성 수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 해발 600m이하의 상록활엽수림대와 목포지방, 완도, 보길도의 저지대에 분포하고, 입지환경적으로는 숲 내부보다는 햇볕이 잘드는 숲 가장자리나 소림지 또는 계곡 주변의 탁 트인 공간에서 주로 자란다.

• 생육가능범위(useful range)

내한성이 약하여 자생적 분포범위가 남부지방으로 한정되나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서해안지역으로는 충청도 해안까지 생육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 승 훈

원대학교 도시조경학부 교수

• 생태

난온대지역의 대표수종으로 저지대에 주로 자라며 자연적으로는 곤충에 의한 수분매개와 새들에 의한 종산분산기구를 통해 분포영역을 확장한다. 자웅이주식물로 인공적으로는 실생묘에 의해 주로 번식되나 삽묘도 가능하다. 양수성 수종으로 햇빛이 풍부하고, 습윤하며 유기질이 풍부한 양토에서 생장이 양호하다.

□ 식재기능 및 기법

수형과 계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식재기능이 다양한 수종이라 할 수 있으나, 표본목(specimen tree)으로서의 가치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원줄기가 곧고 피라밋형의 점진적인 수관의 전개, 치밀한 가지의 성장패턴으로 아담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또한, 광택이 나는 녹색의 잎 사이로 대비되어 드러나는 붉은색 열매의 풍성함은 겨우내 지속되어 기나긴 겨울의 한기를 녹이고도 남음이 있다. 표본목으로 사용할 때에는 공간의 크기를 충분히 고려하되 독립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공원이나 골프장 등 넓은 공간의 동선 주변 경계목이나 보행동선의 폭이 충분하다면 가로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먼나무의 탐스러운 열매는 야생조류의 먹이원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조성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먼나무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대개 건물 전면부나 대문입구, 묘지 앞 등 요점지역에 표본목으로 사용하였고, 가로변 조경에도 주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에 있는 나무가 가장 큰나무로 현재 제주기념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하얏트 호텔앞(사진)에 식재된 나무도 매우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한다.

□ 크기와 습성

낙엽활엽소교목으로써 다자라면 수고 약 8-10m에 이르나 생장이 다소 느린 편이다. 원줄기는 곧추자라고 윗가지가 수평으로 퍼져 우산형의 수형을 형성한다. 잎은 광택이나고 혁질이나 비교적 작기 때문에 질감이 거칠지 않고, 지엽은 치밀하며 전정에도 강하다.

□ 입지적합성

햇빛에 대해서는 자생지의 특성이 양수성 수종이나 음지에 견디는 힘도 어느정도 갖추고 있다. 내공해성과 내염성은 우수하나 내건성은 약한 편이며, 내한성은 매우 약하다. 바람에 대한 저항성은 보통이다.

□ 계절적 효과

먼나무의 미적 가치는 수형미가 으뜸이나 봄철의 백색 꽃과 여름철의 성엽, 가을-겨울철의 홍색 열매가 계절적인 효과를 이어준다. 열매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를 감상하려면 암나무를 선별하여 심어야 한다.

□ 유지관리

입지환경의 적응력이 높기 때문에 별다른 유지관리상의 어려움이 없으나, 병충해에 대한 감수성이 높고, 내한성이 약하기 때문에 생육범위의 확대시 주의를 요한다.

□ 기 타

먼나무가 속한 감탕나무속(Ilex) 식물을 영어로 Holly(신성하다)라 부르는데, 이는 초기 기독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이들 식물을 상징식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가시가 있는 잎과 붉은 열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썼던 관과 흘린 피를 상징한다고 한다.